로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믿음

(약2:1~26)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로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로마서도 믿음을 말하고, 히브리서도 믿음을 말하고, 야고보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대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시간에 이걸 다 알 수 있겠는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대 논문으로 이걸 써놓으면 누가 일상생활 속에서 로마서의 믿음과 히브리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 간에 신학도들 간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지요.
그러니 이 차이를 이 시간 안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요.
왜 우리가 이 차이를 얘기하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사도바울의 그 말씀을 모토로 내건 마르틴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은, 사도바울이 하신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거 뭐, 로마서뿐 아니라 바울서신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르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야고보서의 내용 또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걸 우린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어떻게 통일된 선상에 있는 것인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특징을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도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전제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히브리서 안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이해가 로마서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서로 이해가 다 겹치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점들을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똑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강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더 효과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아예 공통점이 없습니다, 저하고 개를 비교하지 않아요, 저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기반 위에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지, 저와 개를 비교하면서 '아, 태승철이

는 개와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비교가 아니라 그냥 모욕적인 언사일 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서로 다른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공통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는 뭘까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뜻, 마음을 꺼내서 어떤 대상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해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을 꺼내서 어떤 대상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해가 있으면서, 그 공통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강조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먼저, 이 공통적인 기반을 조금 더 이해하면, 마음을 꺼내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은 비어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이 비어있는 마음을 어떤 대상에게 꺼내서 준다는 얘기는 그 대상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꺼내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대상이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제 1장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라고 할 때 '잉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욕심이라는 거는 분수를 벗어난 마음이에요, 자기 분수를 망각하거나 내팽개치고 그 분수의 한계를 벗어난 마음이고, 그 마음도 역시 뭔가를 담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준다고 하는 얘기를 거꾸로 하면 마음에 담는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담습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무엇인가를 담는 것, 이걸 잉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내 마음심장을 꺼내어 주는 것이다, 그 대상을 마음에 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예가 야고보서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와 히브리서도 계속 그런 관점에서 봐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왜 우리가 마음을 주려고 하고 마음속에 담으려고 합니까?
그 대상을 마음속에 담을 때 내 마음이 채워진다, 다시 말해서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만족하면 기쁘다, 기쁘면 행복하다.
그 대상을 마음에 끌어들이고 담거나 마음을 그 대상에게 주면 내 마음이 만족해지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적인 기반이고, 분수를 벗어나 욕심을 부리는 것, 또 분수에 머물러있다고 해도 빈 마음을 채우려는 욕구는 마찬가지고, 분수에 벗어나지 않으면 분수에 맞는 것을 마음에 끌어들여서 만족하려 하는 것이고, 분수를 벗어나 욕심을 부리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끌어

들여서 만족하려고 하는 잘못된 잉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에서 사도바울은 왜 그렇게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면서 물리쳤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뿐 아니라 바울서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돈을 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돈을 담고 명예를 담고 있어요, 인간세상에서 잘 나가는 1등자리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진 율법을 문자적으로 따라서 행동해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민과의 관계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빈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담는 것은 사랑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다른 걸 사랑하고 좋아해서 다른 걸 담고 있으면서,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문자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 내 마음에 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 마음에 들여놓을 수 있을만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돈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됐으면~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형통했으면~ 하고 하나님을 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얻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이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바울은 이 관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태라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의롭다 하심의 판정을 주실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마음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잔뜩 담고서 행위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용어를 그대로 이해하면, 욕심을 부려가지고 빈 마음속에 가당치도 않는 것을 담습니다, 돈을 잉태했다고 합시다, 돈을 벌어야지~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마음에 잉태하고 있는 마음 안에 받아들여진 것과 연관돼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율법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때의 행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것과 연관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돼있어요.
이게 전부 행함이에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행함이라는 차원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 뭔가 이 세상 것, 하나님만을 담아야 될 사람이 딴 것을 담게 될 경우는, 그것과 연관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잉태하면 돈과 연관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위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본 겁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떤 상태라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의롭다고 판정을 하실 것인가를 고려한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율법을 행해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왜 이게 어려운가? 육체에 5감각이 있기 때문에 5감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자꾸 빼겨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대상들에 마음을 빼기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와계신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이라는 얘깁니다.
확실히 다르지요?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믿음은 뭡니까?
야고보서의 믿음은, 문자대로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보는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마음 안에 무엇인가를 잉태하면, 마음에 담으면, 그 담은 것과 연관돼서 사람은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도 알고 히브리서 저자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을 바라보며 로마서를 쓰고, 인간의 입장에서 믿음이라는 걸 바라보고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지금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진짜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그 마음 안에 모셔 들인 하나님 때문에 하는 생각과 하나님 때문에 하는 말과 하나님 때문에 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어긋날 필요가 없는 것이 로마서에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있으면서, 마음에 돈을 담고 이 세상의 형통을 담고 건강을 담고 있으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문자를 따라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때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의 원리가 그러니까, 굳이 행위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에 돈을 담으면 돈에 대한 생각만 하고 돈에 대한 말만 하고 돈을 벌려고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자녀를 담으면 자녀에 대한 생각과 말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행동만 하게 되는 것이니까, 무엇을 담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여기서 행위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법을 따르라는 게 그 얘기고, 히브리서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의 행위는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고 있으면서,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 담고 있는 걸 이루려고 할 때의 그 행위,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에 돈을 담고 있는데, 교회에서 충성하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서 충성하는 것, 요런 거는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행위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믿었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내 마음을 받아들였고, 내 입장에서 봐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고, 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 행동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을 잉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해산된다는 겁니다, 의를 낳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바울의 말씀과 야고보 장로의 말씀이 충돌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가 거부한 행위, 바울서신에서 거부한 행위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을 때 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행위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는 너무나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마음심장을 꺼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의 빈 곳에 하나님을 잉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회당 안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부자가 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사람이 오면 나쁜 자리에 앉히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잉태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행함이 없는 걸 보니까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마음에 잉태돼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잉태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만한 의로운 행위를 낳아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좋아하실만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안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지푸라기서신이 아니에요, 금과옥조지요.
우리 행위를 보면서, 내가 마음을 지금 돈에 주고 있는지, 자식에 주고 있는지, 나라와 민족에게 주고 있는지, 하나님께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러니 야고보서가 금과옥조지요, 지푸라기가 아니라.
이게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는 믿음 안에 포함돼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로 마음에 하나님을 잉태했느냐, 로마서를 통해 히브리서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한 그 내용들이 진짜로 이루어지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빼기지 않고 마음이 곧바로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동안 마음에 다른 걸 잉태했던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 지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주님과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그런다고 믿음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야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요?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크레도'라고 말한 겁니다.
크레도,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께.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그러면 야고보서는 뭡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부터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순환을 십자가에서 올라타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마음에 하나님을 잉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것

처럼, 우리의 공생애를 이 땅에서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부분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 믿음의 복된 단계를 야고보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푸라기 복음서가 아니라 믿음의 순환이 완성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과옥조지요, 금과옥조.
여러분, 아시겠지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쓴 것이 로마서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필요성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쓴 것이 히브리서라고 하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승천 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생애의 예수님의 단계에서 공생애 예수님과 연합해서 너도 공생애를 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경 속에 야고보서가 끼어들어오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간절하게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단계의 삶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온전히 날마다 반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